

산학 협동으로 공동의 발전 이룬다

부산지회 · 동주대학 '윈-윈' 협약 체결

업계는 마케팅 · 경영 · 이론적 토대 구축을, 대학은 현장감 넘치는 교육을...
베이커리 업계와 대학이 손을 잡았다. 지난 2월 대한제과협회 부산지회와 동주대학이
상호 발전을 위해 체결한 산학 협동 협약의 의미성을 짚어본다.

글/박종선 sunpark@mbakery.co.kr

대한제과협회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이하두)가 대학과 산학 협동 협약을 체결, 제과인의 자질 향상과 부산 지역 제과 제빵 교육 발전을 함께 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부산광역시지회는 지난 2월 23일 이하두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동주대학(학장 정종섭)에서 산학 협동 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현실에 부응해 대학의 수준 높은 이론 · 실험 실습 기반을 제과인에게 제공하고, 대학에게는 베이커리 업계의 현장성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지회와 동주대학은 이번 조인식에서 상호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및 보유 자료를 활발하게 교환하기로 했다. 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때 부산지회 회원이 대학의 시설과 실험 장비를 이용하는 한편 제과 제빵 관련 자료의 교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부산지회는 이번 협약 체결로 제과인의 경영 역량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 베이커리 업계는 마케팅 · 점포 운영과 관련해 정보 습득의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동주대학과 협약 체결로 인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을 초청하는 경영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 돼 회원의 점포 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부산지회와 동주대학은 재학생 현장 실습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제과 제빵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재학중 부산지회 회원 점포에서 부족한 실무를 보충하고 현장을 몸소 체험케 함으로써 우수한 제과 제빵 기술 인력이 베이커리 업계에 유입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위탁 교육 실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업계 기술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수준 높은 이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협약 체결로 이런 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길이 열리게 됐다.

현직 기술인 중 배움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산지회 지회장이 추천하면 동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 위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과인들은 위탁 교육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 정규 대학에도 편입할 수 있어 부산 지역 기술인의 자질 향상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 조인식 후 단체 사진

산 · 학 협동 협약조인식

일시: 2001. 2. 23 (금) 11:00 장소: 동주대학 학장실



▲ 서명 장면

부산지회와 동주대학은 이번 협약 체결로 상호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됐다. 대학은 베이커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경영 · 기술 등의 부문에 대해 인적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부산지회도 회원 중 우수 기술인이 특강 형태나 겸임 교수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 측에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지회와 동주대학은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측의 발전을 꾀하는, 이른바 윈-윈(Win-Win)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 양측은 협정 체결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산학 협동의 향후 효과에 대해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B]